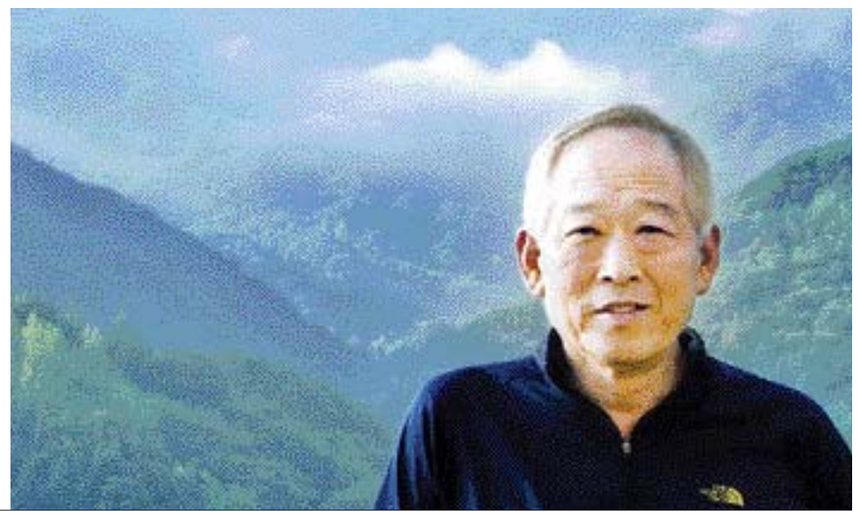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이성부 시인 등단 50년

아홉번째 시집 '도둑산길' 출간



내 詩는 늘 산과 함께… 무등의 품이 그립다

30년 산행 '산의 시인'으로

산과 교감하며 암 극복해내

1980년 광주 비극땐 절필도

광주 출신 이성부(68)시인이 아홉 번째 시집 '도둑 산길'(책만드는집 펴냄)을 출간했다. '내가 걷는 백두대간' 연작의 완결판 격인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린다' 이후 5년 만이다.

그간 이 시인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시인은 간암투병을 하며 글쓰기와 책 읽기, 걷기를 통해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느리게 걸어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했다. 간동맥색전술 시술을 몇 차례 받았으며 좋아하던 술도 끊었다. 이번 시집은 5년간의 고행의 결과라 더욱 의미 있고 값지다.

이 시인은 지난 5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등산의 품이 그립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서울에 둥지를 튼 지 40년. 이 시인은 일 년에 네다섯 차례 고향 광주를 방문한다고 한다. 이 시인은 "광주에 들를 때마다 무등산을 찾는데 삶과 문학의 모태인 만큼 오를 때 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성적이 된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뛰어올라가고 싶어진다"고 전했다.

이번 출간된 시집 역시 산시(山詩)로 시작해서 산시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인이 산과 함께한 30년 과정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이 시인이 '산의 시인'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전의 시집과 차이가 있다면 이전의 시집들이 강도 높은 산행을 통해 얻은 치열한 자기 성찰을 주로 다뤘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산과 시인이 교감하고, 깨우치고, 담담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는 감상을 담았고 관심의 폭도 더 넓어졌다는 점이다.

이 시인은 올해 등단 50년을 맞는다. 그의 문단 이력은 오르락 내리락 굴곡진 산행처럼 길고 고단했다. 문단에 처음 발을 들인 해는 아직 고등학생 신분이던 1960년, 옛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신춘문예를 통해서였다. 1962년 '현대문학'에 추천되어 문단에 본격 데뷔했고 1967년 다시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1980년 한국일보 기자로 있던 그해 5월 광주의 비극을 목도하면서 언어로 욕하는 언론의 비열한 행위에 회의를 느껴 3년간 절필하기도 했었다.

그 후 다시 펜을 들어 시집 '야간산행', '지리산' 산문집 '산길', '눈 뜨면 성큼 산이 다가오네' 등을 냈다.

요즘 들어 세월이 참 빨리감을 절실히 느낀다는 이 시인은 앞으로도 글 쓰고 산행하는 일상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석 달에 한 번씩 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완치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다.

1980년 서울의 삼각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명산들을 찾아다니며 산에 몰두해온 만큼 시인의 산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매주 산에 오르고 또 산을 주제로 많은 시를 써왔으니 산이라면 이제 더 할 이야기도 없을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그의 말이다. "산이라는 것은 오를 때마다 새롭고 오래 다닐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 것이, 오래 쓸수록 과연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시의 세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기자에게 "꼭 산에 다니도록 하세요"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인터뷰 내내 이 시인의 목소리에서는 어려운 시절을 보낸 작가의 무거움이 아닌 산꾼 특유의 넉넉함과 편안함이 배어났다.

이제 그에게 있어 산과 시는 동의어가 된듯하다. 그가 살아 가는 동안 산시를 계속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시인은 이 달말 광주를 찾아 또 한번 무등산에 오를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3월에 읽을 만한 책 뭐가 있나

간행물윤리위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3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철학 부문의 '메두사의 시선'(푸른숲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발표했다.

문학 부문은 오랜 투병 생활에서 나온 사유와 관조가 돋보이는 '쓸쓸해서 머나먼'(문학과지성사 펴냄), 실용 부문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을 갖추기 위한 전략을 소개한 '문화적 혼혈인간'(생각의나무 펴냄)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마오의 제국'(말글빛냄 펴냄),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비아북 펴냄), '우아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지배한다', '원더풀 사이언스'(지호 펴냄),'게리'(미메시스 펴냄), '옵티미스트'(부키 펴냄), '베컴 머리 힙합 선생님'(교학사 펴냄) 등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위원회는 '3월의 청소년권장도서'로 '그대, 청춘'(비아북 펴냄), '열네 살, 비밀과 거짓말'(네버엔딩스토리 펴냄), '오래된 연장통'(사이언스북스 펴냄), '근현대사 신문 근대편/현대편'(사계절 펴냄) 등 10권을 선정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 : //www.kpec.or.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생명의 빛, 그림일까? 사진일까?

사진작가 이정록 개인전

26일까지 서울 빛갤러리

찬란한 생명의 빛이 마른 나무에 새 생명을 돌게 한다. 사진작가 이정록씨가 9~26일 서울 빛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씨는 나무, 갯벌, 고인돌이 놓인 대지, 대나무 숲 등지에 인공적인 사물을 배치해 색다른 영상미를 주는 작품을 선보이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생명나무'를 주제로 앙상한 나뭇가지에 빛을 매달아 환상적인 느낌을 주고, 들녘에 빛을 내는 투명 원통을 놓아 삭막한 풍경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찬란한 빛이 감도는 나무는 새잎이 돋아난 듯 생명력이 넘치고, 어둠과 빛의 대비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생명나무'

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거쳐 홍익대 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미국 로체스터공과대학(R.I.T) 영상예술대학원에서 순수사진을 전공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5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김환기국제미술제전, 해밀전 등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2-720-225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피아노협주곡 감상해볼까

광주시향…12일 문예회관

〈최희준씨〉

〈서현일씨〉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제254회 정기연주회로 러시아 출신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과 피아노협주곡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연주의 지휘는 객원지휘자 최희준(독일 작센 주립극장 수석지휘자)씨가 맡는다.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최씨는 2003년 독일 음대 지휘콩쿠르에서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1위상인 카라얀상을 수상했다. 또 베를린 심포니 등을 지휘했으며 서울시향과 부천시향 객원 지휘를 맡은 바 있다.

그가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춰 들려주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다.

뛰어난 테크닉과 집중력을 요하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협연할 서현일씨는 지난해말 광주시향이 진행했던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

광주예고 재학중 독일로 떠나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박사과정을 마친 서씨는 루빈슈타인국제콩크르, 마드리드국제콩쿠르에서 3위 입상했다. 티켓가격 1만원~3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첼리스트들의 사랑의 멜로디

16일 광주 문예회관서 아이티돕기 연주

지난 2002년 창단 후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들의 모임 '메타 필로스 첼리스텐'이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음악회를 갖는다.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아이티 국민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다.

이날 들려주는 레퍼토리는 헨델의 '합주협주곡 3번', 포퍼의 '세 대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레퀴엠 작품 66', 파야의 '스페인 민요에 의한 6개의 노래' 등이다.

또 비틀즈의 '미셸', 사이먼과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블리스의 '내 평생 가는 길' 등 팝송·성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출연진은 단장을 맡고 있는 박문경(광주시향 첼로 수석)씨를 비롯, 김현정·윤소희·이희진·유순아·윤소현·장미·김국주·오승석·이지현·김희경씨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유병금씨다. 전석 2만원. 문의 017-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